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신기술 상용화

노바셀과 공동 연구개발 계약 ... 치료제 생산비용 절감효과 기대

성체줄기세포 개발기업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신기술의 상용화에 나선다.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황동진)는 토자이홀딩스의 자회사 노바셀테크놀로지(대표 이태훈)와 줄기세포치료제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9월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포스트는 노바셀테크놀로지에게서 개발한 줄기세포 배양 효능 핵심물질을 제공받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바셀테크놀로지가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 배양기술은 무혈청 조건에서 1차 세포배양(Primary Cell Culture)을 실현하는 것으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는 “신기술이 상용화되면 줄기세포 배양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5>